

## 종합·해설

## 한나라 지도부 광주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26일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가 국민통합 앞장서 달라 호남공약 200% 실천하겠다"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26일 불모지인 광주를 찾아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올해 첫 현장 방문 지역으로 호남을 택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곳부터 차곡차곡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여진다.

안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와 여수엑스포 등 지역협안 사업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다.

### 여수엑스포·광주 광산업 등 현안사업 지원 약속

◇ "선거제도개혁 지역주의 타파" = 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언급한 뒤 "1980년대 시대정신이 불의에 맞서는 항거였다면 2011년 시대정신은 국민화합·국민통합"이라며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새 시대정신으로 광주시민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 빌려 지역화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 모두에게 부탁한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선택제 등 선거제도의 보완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정치과제"라고 강조했다.

◇ 호남은 한나라당 '블루오션' =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에서 2.7%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으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8.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작년 6·2지방선거에서는 10%의 득표율을 넘어섰다"며 "광주·전남 시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의 진심에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한다"고 분발을 다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호남인이 한나라당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호남인의 사랑을 얻는 것'이라고

역을 선도적으로 지정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정부 절차에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다면, 입지선정을 놓고 지역 간 분란이 더 이상 없도록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여수엑스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조만간 별도의 당정회의를 열고 관계장관들이 현장을 방문해 지원방안을 발표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광산업 지원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CT 연구원 ▲사회복지예산 국비지원 확대 ▲도시재생특별법 ▲광주은행 지역본인 인수 등 광주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호남 뒷으로 최고위원에 지명된 정운천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한나라당에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줬다"며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호남이 한나라당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현안사업 지원 약속 =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광주시가 업무자를 보이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리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절차대로 따를 것이다라는 입장은 재확인했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밸리는 오는 4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위원회가 구성돼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특정지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안상수 대표, MB 따라하기?

### 5·18 민주묘지 희생자 묘지 상석 밟아

'보온병'과 '자연산'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6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과정에서 희생자 묘지의 '상석(床石)'에 발을 올려놓아 5월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과문이 일고 있다.

이날 안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읊 들어 처음으로 지역 현장 방문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가 5·18 희생자 묘역에 안장된 박관현 열사의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상석에 발을 올려놓는 결례를 범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 시절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故) 흥남순변호사의 상석에 발을 올려놓아 비난을 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박관현 열사의 묘비를 만지면서 '상석(床石)'을 밟는 결례를 범했다. /연합뉴스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국립 5·18 묘지 참배과정에서 묘지 상석에 발을 딛고 올라선 행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정·폄훼하고 묘지를 참배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경솔한 자세와 관련해 관대하게 인내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는 5월 영령 앞에서 스스로 크게 뉘우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석은 사각형 모양의 돌을 제작 크기로 다듬고 원형의 받침돌 4개를 붙여 만들어 무덤 앞에 놓은 제단이다. 묘재 때 제물을 진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때문에 상석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것은 결례로 여겨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축산인들 무책임한 해외여행

### 구제역 위험국 하루 50~60명 방문

### 첫 발생 안동 농장주 보상금만 105억

### 정부, 전파 책임 농가 차등 보상 검토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무려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하루 평균 50~60명의 축산업 종사자들이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외여행을 다녀온 공항에서 검역·소독 조치를 받은 축산 관계자는 하루 평균 55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축산 농장주와 수의사 등 등록된 축산업 관계자들이 입국하면 신고서를 받고 소독을 하고 있다.

입국한 축산 관계자 수는 18일 60명에서 19일 40명으로 줄었지만 20일 51명, 21일 60명으로 늘었다.

또 22일에는 54명, 23일에는 67명, 구제역이 청정지역 경남까지 퍼진 24일에는 54명이 여행을 갔다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행선지는 주로 구제역 위험 지역인 중국(17.8%)과 태국(13.7%), 필리핀(11.1%), 베트남(8.0%) 등 동남아 국가로 나타났다.

이번 구제역이 베트남에 갔다 온 농장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축산업계에 국외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축산업 종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제역 위험국 여행을 서슴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차후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라도 방역을 위한 축산 농가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구제역을 막는 데 급급한 실정이고 미처 확산의 책임을 따질 겨를이 없어 대부분 농가에서 매몰되는 가축의 시가 100%를 그대로 보상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11월 베트남에 다녀온 경북 안동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 A씨도 한우 매물 보상금으로 105억6000만원,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베트남에 다녀온 안동 폐지농장주 B씨도 보상금으로 53억 6000만원을 책정받아 26억8000만원을 이미 수령했고 생계안정자금 1400만원도 행정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까지 농가에 출할 가능에 매물 보상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9000억원밖에 없어 예비비를 끌어쓰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을 차단하려면 누구보다 농장주가 철저히 농장을 방역하고 소독해야 한다"며 "구제역이 종식되면 그동안 이를 방지하거나 확산한 책임이 있는 농가에 보상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기업 영업 전문 위험 컨설팅 턴트 삼성화재 CRC 모집 공고**

삼성화재와 함께 손해보험 최고의 금융전문가로서 꿈을 키워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삼성화재 기업영업전문 위험컨설팅팀 CRC(Corporate Risk Consultant)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고 유능한 인재들을 선별하여, 최고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육성된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내 50여개의 중소기업과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위험진단컨설팅과 종업원 및 근로자의 복지 / 세무 / 금융컨설팅을 해주는 최고의 손해보험 기업영업전문 위험컨설팅팀입니다. 아래 모집안내를 참고하여, 삼성화재와 함께 최고의 기업금융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 모집 대상

지원부문 기업체 및 단체 대상 기업보험 전문가 해당전공 전문가

### 모집 인원

'11년 1~2월 000명 내외

### 활동 지역

서울 및 수도권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 활동 내역

기업체 및 단체대상 각종 기업보험 컨설팅

- 퇴직/일반보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단체시장 컨설팅 영업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위한 장기, 자동차 및 건강 컨설팅 영업

### 수당 체계

초기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수료후 코드부여時 150만원 지원
- 회사가 정한 최소 활동기준 달성時 초기 1년간 매월 최소 200만원 수수료 지원
- 코드부여時 활동을 위한 개인PC 구입비 100만원 한도지원

### 각 종 자격

회사가 정한 수수료 규정상 일정 자격 충족時

- 경조비, 조의물품, 명절선물
- 장기활동지원금, 금융자격취득 축하금, 신종단체보험가입
- 개인연금 지원, 저년학자금 및 교육비, 건강검진 지원 등

### 모집 일정

- 서류접수 : 2011. 1. 17 (월) ~ 1. 30 (일) 18:00 까지
- 설명회 : 2월 8일(서울)  
2월 9일(부산·광주·대전·대구)
- 인터뷰 : 서류전형 합격자 限 개별통보

### 서류 접수

• 삼성화재 CRC 리krouting 담당

- 헬태영 책임 (02-772-8204)
- 최철주 책임 (02-772-8202)
- 김성영 선임 (02-772-8203)

thinkNEXT

삼성화재

SAMSUNG